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복음의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예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119: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순근



제5회 전국 찬양대 지도자 강습회

“나는 사탄의 수선화도 골짜기의 백합화도 그나”(사72:1)

지난 8월 9일(수) 오후 2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제5회 전국 찬양대 지도자 강습회가 3박4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우리교회 찬양위원회에서 주관한 강습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200여명의 성도들과 우리교회 지휘자, 반주자, 이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이 참가하였다. ‘특강, 선택식 강의, 부흥회, 금요집회 찬양, 찬양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 이번 강습회는 ‘음악의 이론과 실기’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의 영적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었다고 참가자들은 회고했다. 중소 교회 찬양대를 두고 심기교사 시작한 전국 찬양대 지도자 강습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그 취지에 적합하게 찬양 사역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좀더 맑고 깨끗한 영혼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

제4차 학습 세례식 8월27일 찬양예배 시간에

2000년도 제4차 학습 세례식이 8월 27일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시간에 배풀어질 예정이다. 해당되는 분들은 각 교구 담당 전도사에게 신청하시고, 빠짐없이 학습과 세례 문답을 위한 교육에 모두 참가하시길 바란다.

2000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8월 13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김현민 목사)	314호	교회를 (정갑신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기독교 (정갑신 목사)	314호	세례?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8월 20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김민익 목사)	교육관 407호	구원론 (이종대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 (전형준 목사)	교육관 314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장소		
8월 27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지역 찬양예배, 본당)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간담리홀)		

교역자 인사 및 청빙

교회는 지난 8월 정기대회를 통해 8월 9일부터 부목사 3인을 청빙, 임명하였다. 송길한 목사는 외선부 지도로, 여국근 목사, 김교성 목사는 교구 지도로 각각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중등2부를 지도하던 염현민 목사가 지난 7월 30일 사임 하였으며, 중등2부 지도에는 김동하목사(출판국 지도)가 겸임하게 된다.

충현의 성도들은 금번에 임명된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섬기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겠다.



여국근 목사
(63.8.27)
경북 대
철학과 졸업, 충신대
신대원 졸업, 부산중앙교회, 서울강
현교회 등에서 시무



김교성 목사
(66.7.9)
영남 대
교육학과 졸업, 충신대
신대원 졸업, 서울평안교회, 대전
대일교회 등에서 시무



송길한 목사
(68.5.31)
충신대
신학과 졸업, 충신대
신대원 졸업, 복일교회, 성암교회
등에서 시무, 군포장로 역
임

제8회 안수집사 여름수련회

안수집사회는 오는 14일(월)부터 16일(수)까지 2박3일 동안 기도원에서 안수집사 부부 수련회를 실시한다.

특별히 새 천년 첫 광복절을 사이에 두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안수집사 여름수련회는 ‘부흥사경회, 특강, 팀별 한마음잔치, 산상 기도회’ 등 통해 연합해진 심령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큰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수련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송수 목사, 조철주 목사, 노광현 장로, 오정현 장로가 강사로 수고하는 이번 여름수련회에 해당자는 모두 참가하여 은혜 받기를 바란다.

후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 마감

‘후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 접수가 오늘로 마감된다. 신청자들은 모두 선교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교후원에 참가해야 하며 선교후원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2000년 8월 18일(금)

오전 9:00 ~ 오후 11:00

(금요집회 참석)

장소: 베다니홀 및 갈릴리 홀

강사: 이준경 목사, 정갑신 목사,

이송수 목사, 정현민 목사

선교기도회

일시: 8월 22일(월) 저녁 6시30분~9시30분

장소: 만나홀 및 메추리기울

(6시30분~만나홀, 7시30분~메추리기울)

대상: 선교위원회 위원, 실행위원,

LMTC교역자, 외선부 교사, 선교관장사

목·정말림

아침의 창가에서(에3:22,23)

김 동 하 (목사, 출판국 지도)

새벽 날개로 날아오시는 아예!
햇살 머무는
아침의 창가에
당신의 순결한 사랑이 흐릅니다
아디든 찾아오시는 당신!
진 밤의 기딤 뒤
빛으로 두드러지는 아침의 노크는
하루의 고달픔
넉넉히 감싸주실 향기로운 입맞춤!
그리하여
당신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영원한 사랑이심을,
언제나 그 자리에서 계시는
아침의 연인(戀人)인 것을!
그리스도여!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잠을 깨고,

그대는
나로 인하여 기쁨에 잠기도록
영원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사랑이게 하옵소서!
한 평생
당신밖에 모르는
바보같은 신부이게 하여주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거나, 푸른 산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
는 꿈을 짓고 싶었.
하지만 그대는 자기의 눈을 바라보게 하
셨다.
하루종일 그의 눈동자를 기억하라고
아침마다 창가에 서서 나를 바라보셨다.
내일 아침도 주께선 내 마음의 창가에
서 계시겠지!

God's Invitation

(Isaiah 1:18)

"Come now,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like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as crimson, they shall be like wool."

The condition of sinful humans brings terrible results. Take a glance at some of the Bible verses leading up to today's message, like verse 2, "Listen, O heavens, and hear, O earth; For the Lord speaks, Sons I have reared and brought up, But they have revolted against Me, and verses 5 and 6, Where will you be stricken again, As you continue in your rebellion? The whole head is sick, And the whole heart is faint. From the sole of the foot even to the head There is nothing sound in it, Only bruises, welts and raw wounds, Not pressed out or bandaged, Nor softened with oil." It's clear that the bad results are because of sin. People who abandon or despise God are corrupt, weighed down with iniquity. Actually, all humans are offspring of the evil doer because of sin. Sin removes man far, far away from God.

God wants to change this condition. He's called a meeting! Amen! Look at today's message, "Come now, and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as scarlet, They wi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like crimson, They will be like wool." God calls you to "come now", not later. He calls you to Him as you are, not after your sins have been cleansed. Your need of Him is urgent because your sin is so dangerous and deadly. Not even one moment can you wait. This is an emergency, you cannot delay.

God has called you to meet Him, not some executive or

important worldly person, but Almighty God! The simple person cannot think well, he/she doesn't have good thoughts. They don't have good minds. They've lost the peace that comes from faith. But this wonderful meeting is so desperate. If you don't want to come, or if you have reason not to come, that's only against God. This God, the maker of all creation, requires you to come. You cannot think about it. You cannot discuss it with your self. You can only listen and obey. You need a cure. You are sick. If you only come to Jesus for Sunday worship, you are a hypocrite. You may not have any deep thoughts about God, but God asks you to come. He is really serious. He is talking about the real heavenly kingdom, and the real burning hell. He's willing to discuss it with you.

Do you think that there is any other meeting more important than this one? If you come, it will be the wisest decision you'll ever make. If you fail to show up and neglect this meeting because you're looking for happiness in this world, you will be making the absolute worst decision of your life. How often have you thought that this Jesus thing is good and righteous, but worldly things are bet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spent, just a moment, weighing the value of worldly things, like fame, fortune, and fancy against heavenly things, like eternal life, love, and happiness?

God's invitation to you i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you to experience the grace of God. He's asking you to come. The King is inviting a slave into His palace. This kind of opportunity doesn't come often. It is very rare, very remarkable, and totally not normal. The King invites you to proclaim peace. He really wants to talk to you about forgiveness. He really wants to talk to you about righteousness. The appointment time is now! You don't have to prepare, you truly can't prepare. Just come as you are in your terrible situation. God's love, in Christ Jesus, will welcome and restore your broken life.

The Lord God honestly calls to you. He already knows that your sins are like scarlet. That literally means that He seeks sinners, big time sinners! He already knew that He would take care of them, He said "They will be as white as snow." You can't do it. No other person on this earth can do it. Only God can do it. Only He will do it. He forgives you. He will make peace in your battle. The battle is finished. He removes sin perfectly, from crimson red to white wool. He cleanses eternally. He removes the punishment. He destroys the sin. He protects His new creation. He explains with His Word, not human words. Without condition, He forgives. Blessings upon blessings befall His children. He makes you a new creature and a holy person, if you come to Him immediately.

All humans are like scarlet

and crimson, but we have the incredible opportunity to become like white snow and wool. Between the red and white colors of human life is the biggest sacrifice—the blood of Jesus Christ. His blood cleansed sin once and for all. The sorrow of the Holy Spirit moved the will of Jesus. Human knowledge or sacrifice cannot make this happen, it cannot change humans from crimson to wool. God directly tells you that He will cleanse you. Human sin destroys humans, but the blood of the Lamb of God, Jesus Christ, takes care of the sin of the world. Come now, come to the righteousness and grace of God. Accept His invitation. Where is the loss?

The meeting with the Creator, Almighty God, results in changing your sins to snow. You will become His child, a part of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God's own possession, so that you may proclaim the excellencies of Him who has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for you once were not a people, but now you are the people of God; you had not received mercy, but now you have received mercy (1 Pet. 2:9&10). Amen! Reconcile with God through the blood of Jesus. Accept His invitation. 



김성관 목사

지금, 나아오라

(사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로 인하여 절망적인 인간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의 상태는 끔찍한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이끌어 가는 앞의 구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악당되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파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더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서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쁨으로 유쾌해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징계는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경멸하는 자들은 죄악에 놀려 있는 타락한 자들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한 악의 자손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옮겨놓았습니다.

죄인을 위한 구원의 소식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만나자고 부르십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나중에게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들을 현재의 그대로 오라고 하시며, 죄가 말끔히 씻겨진 후에 오라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긴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죄는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당신은 주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긴급한 일이며, 당신은 지체할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당신과 만나기 위해 부르는 하나님은, 집행권한이 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평범한 사람은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인간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생기는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만남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거나, 나아오지 않으려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아오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에 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대하여 스스로 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병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 예수께 나아온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아오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는 실제로 진지하십니다. 그는 참된 하늘의 왕국과 불타는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논의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어떤 다른 만남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니까? 만일 여러분이 나아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내리게 될 어떤 결심보다도 가장 명백한 결심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이 주는 행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만남에 나가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에 관한 것은 선하고 의롭지만, 세상적인 것은 더 나은 것이라고 얼마나 자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생명과 사랑 그리고 행복 등과 같은 천성의 것을 방해하는 명에, 부요함, 환락과 같은 세상의 가치들은 여러분

들이 마지막 순간을 보낼 때 즉시 여러분을 무겁게 누를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요점

여러분을 향해 지금 나아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초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향해 오라고 요구하십니다. 왕이 그의 궁정으로 노예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드물며, 매우 주목할 만하며, 평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선언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용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하십니다. 약속 시간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약속 시간 상태 그대로 즉시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망가진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

주 하나님은 정직하게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는 이미 여러분의 죄가 주중만 같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문자적으로 이것은 그가 심각한 죄인들을 찾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흰 눈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씻길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그는 영적인 전쟁에 놓여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는 죄를 완전히 소멸하셨습니다. 붉은 주홍 빛을 하얀 양털처럼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는 영원히 청결하게 하시고, 형벌을 모두 제거하셨으며, 죄를 멸절해 버리셨습니다. 그는 그의 새로운 피조물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말이 아닌 자신의 말로

설명하십니다. 조건없이, 그가 용서하십니다. 축복 위에 축복이 주의 자녀들에게 부여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면, 그는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기록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어린양을 통한 죄 씻음

모든 인간은 진홍빛이나 주홍빛과 같은 죄인이지만, 흰 눈이나 양털과 같이 될 수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붉은 색(죄인됨)과 흰 색(의로움)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한 가장 큰 원인이 놓여 있습니다. 그의 피는 “독서”로 ‘단면’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의 단식은 예수의 의지를 움직였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회생은 인간의 주홍빛 같은 죄를 흰 눈과 같이 변화시키는 일을 벌여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께서 깨끗하게 할거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상의 죄인을 돌보십니다. 지금, 의와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실패한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축복으로의 초청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와의 만남은 여러분의 죄가 눈처럼 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그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10절에 이 놀라운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

'예수를 알자'

국내외국인선교부 여름수련회 은혜중에 마쳐



지난 8월 1일 저녁부터 3일까지 교회 기도원에서 국내외국인선교부(이하 외선부) 여름수련회가 열렸다. '예수를 알자'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수련회는 모든 프로그램이 외국인 형제들이 예수를 배우는 데 집중되었다. 각 국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읽는 시간과 연이은 성경공부 그리고 나라별 기도회 시간은 과거보다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둘째 날 저녁에 있었던 부흥회는 류병희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는데 모든 외국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화합하는 시간이었다. 앞서 진행된 '선교와 찬양의 밤'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본진지를 이방인 형제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다양하게 선보였다. 천지창조, 타락, 죄의 관영, 예수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등 여섯 가지 주제를 정해 영화 상영, 성경 낭독, 외선부 지체들 찬양, 찬조 찬양 등

의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여름 휴가와 수련회 일정이 맞지 않아 외선부 전체 형제들이 오지는 못했다. 지난 약 170명의 외국인인 50여명의 봉사자들이 이번 여름수련회에 참가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많은 무슬림과 시크교도들이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동안 마음으로 멀려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가장 커다란 성과이다. 실제로 수련회가 끝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는 무슬림 형제들이 나타났으며 성경 읽기 시간을 앞으로 계속 갖고 싶다고 요청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여름수련회가 연례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집회와 연계되어 외선부가 더욱 내실있는 부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교위원회)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우리의 기쁨은



이 명하 (외선부 교사)

치타공의 작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현지인들이 까맣게 몰려왔다. 베이비백이나 캔트카의 운전사들이다. 브루룩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라무'라고 외치셨다. (나중에 알고보니 '브루'를 '라무'로 잘못 말씀하신 것) 어설피게 보이는 경찰관의 개입끝에 간신히 차에 올랐는데 조금 뒤 이들이 브루룩에게 가는 길을 모른다는 사실과 잘못 받은 '라무'가 지도 상에 실제로 위치한 소도시의 이름이란 걸 알게 되었다. 치타공의 중심지에 있는 한 호텔에서 내려서 브루룩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에게 가고 싶다고 했더니, 덴트카로 최대한 갈 수 있는 곳이 '라무'라고 하였다. 치타공에서 내시간 정도 걸러도 착한 곳이 결국 큰 마을 정도 크기의 소도시인 '라무'였다. 차가 멈추자마자, 비두라는 소년이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어서 이 마을의 족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를 데려간 곳이 검은 나무로 지은 목장 사원이었다. 인디언처럼 보이는 나이 많은 중과 할머니를 나누고 비두의 집으로 가서 하루를 묵기로 하였다. 나무로 만든 이중의 좁은 집이었다. 그 가족들과 플라로이드 사건을 겪어 주며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주변에 살고 있던 비두의 친척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어느새 방이 복잡해 되었다.

그 마을은 50%정도가 바투아라는 성을 가진 비두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 불교신자이며 모슬렘이나 힌두교는 2-3%정도만 있었다. 그 근처에 있는 불탑은 약210년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했는데 불교라 그런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처럼 보였다. 그중 '라무'라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평소 크리스천 친구들을 통해 기독교에 대해 열린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 다음날까지 함께 하는 동안 부모와 친척들이 불교라 드러내놓고 믿을 수 없지만 마음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하였고 목사님이 라무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이번 방글라데시 단기선교의 목적은 현지 적응훈련으로 외부의 어떤 도움에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게 우리에 맞지 않는데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방글라 사람들로부터 만민복사에서 우리에게 믿을 건네는 할아버지들 보며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가능성과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강원도 옥계대동교회 여름 사역을 다녀와서

정선현 (집사, 17교구)

강릉에서 자동차로 동해고속도로를 따라 40분 정도 내려가, 옥계 해수욕장에서 옥지쪽으로 3Km 정도 들어간 지역에 위치한 낙동교회는 지역은 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마을 일구에서 가장 안쪽까지 총 1900의 가옥이 소규모로 분포해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독거노인 또는 자녀들이 외지로 나간 부부들만이 남아서 가난한 빈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마을 주민은 개인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기가 몹시 어려운 형편이나, 계속적인 목회사역의 필요로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상당히 호의적인 상태이다. 각 사역팀별로 사역내용을 살펴보자.

주목법으로 허기 달려매 딸깍을 달려(신학 축조전도팀)
딸깍을 이르러 내 중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부촉한 우리에게도 선행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우리는 다 목이 메었다. 하루에 3번 비스가 다니는 종점에서도 비포장 길을 한참을 어렵게 올라가면 더 이상 차로는 갈 수가 없는 그곳. 점심식사를 주먹밥으로 해결하고 땀을 피할 길 없어 세발자전거 회상을 읊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휘집고 다닌 곳, 일 부러가 아니냐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이 우리가 간 딸깍이 아닐까. 인적이 드물어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어 차라리 우리를 붙잡는 그 사람에겐 주님을 전하기는 차라리 쉬웠다. 철저한 불교권임에도 시집에서 아직도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김순남(77세) 할머니와 누나가 주일이 되면 교회까지만 데려다 주길 바라는 정연옥(90세) 할머니, 오래도록 주님과 멀어져 있는 조영희 할아버지와 노경록 목사님의 예수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시던 이준재 할아버지의 그 깊은 눈빛을 그냥 두고 나오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마을 축조전도팀)
두 여집사님을 한 부락에 떨어뜨리고, 만기기로 약속한 시간에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괜히 허전한 생각이 들어서 사잇길을 두비며 찾아갔다. 모퉁이 집에서 한참을 웃으며 나오는 두 집사님을 보며 "그렇게 늦었는데 어떻게 해요?" 소리!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냥 나와요." 하늘의 표징이 나무

도 아름다웠다.

하루종일을 발로 서고, 입으로 전도, 손으로 예술이(미용 전도팀)

아침 7시 정각부터 모이기 시작한 동네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이 기다리느라 앉아 있는 곳엔 빠짐없이 우리 송향자 전도사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있다. "아주머니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가르쳐드릴까요?" "아저씨, 이런 예수님 만나서야 해요." 여지없이. 커머와 이발하느라고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은 예수님 이야기 듣기 싫어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지역 전도하라고 모든 인원이 빠져나간 곳에는 이·미용전도팀원들의 입까지도 열 수가 있었다.

쌀 한톨까지도 안넘신 주님(마을전지 식사봉사팀)

"이마 흥보가 미흥했어 여름에 바쁜 일손 때문에 많이 올 줄지도 몰라" 믿음의 호트러진 생각은 잠깐. 여러번의 상이 치루지고자서 주님이 참석 안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보다는 음식이 모자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또 들기 시작했다. "좀 여유있게 준비하길." 그래도 손길 집사님들의 손으로 전해지는 그릇들엔 가득가득 담긴 거친 육의 양식으로도 풍족한 식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감사의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서로 나누었다.

후기

동네 주민들을 섬기느라 헤어진 신발에 부족한 양식에 온 지역을 누비고 다니시기에 굳이 따로 앉고 서는 그런 목사님의 열심은 우리들이 스스로 도전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곳을 섬기는 목사님의 상급이 하늘에 쌓여지길 기도하며 가족들의 건강을 빈다.

농활을 다녀와서

조은정 (대학부 3년)



솔직히 처음 농활을 가기로 했을 때 많이 망설였었다. 농촌으로 봉사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4박5일이라는 시간도 나에게겐 길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준비모임을 하는 가운데 불안한 마음은 점점 사라져 갔고 지금은 그곳에 가서 그런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 감사하기만 하다.

농활을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인원의 부족이었다. 농활을 떠나기 2일 전까지도 확정된 인원이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우리는 사방에서 사람을 끌어 모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았다. 팀의 리더인 병호 오빠는 너무 사람 수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고 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여주셨고 총 인원은 24명이 되었다. 농활을 마친 후 생각해 볼 때 개개인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이들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모여진 인원들은 교회에서 기도를 한 후 전복 고깃국으로 향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전복 고깃국 무장중앙교회였다. 그곳에서는 몇 년째 타교회의 대학생들이 와서 농활을 했는데 사정상 올해부터는 오지 못하게 되어 그곳의 목사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셨다고 한다. 주위의 많은 주님들이 먼저 같은 학생들이었지만 학생들의 농활로 인해 점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있다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도하한 첫날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다며 처음 해보는 발일이라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 3일 동안 하루 종일 이런 일을 해야 할텐데,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까마득하기만 했다. 나는 첫날 일을 마친 후 기도회 시간에 이런 기도를 했다. '제

발 하루가 10분처럼 가게 해주세요' 라는. 그리고 저금와서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기도는 이루어진 것 같다.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저녁 집회 시간에 모여 기도회와 찬양을 하였고, 오히려 하루의 피로가 풀렸다.

이번 농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그렇게 힘들고 지치는 상황에서도 누구하나 불평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몸이 지쳐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상황에서도 자진해서 설거지를 하던 후배들을 보며, 아무도 자기 싫어하는 힘든 일을 자진해서 가겠다고 하던 지체들을 보며, 나는 지금까지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데 왜 나는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불평과 불만만을 얘기했을까. 과연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얼마나 정감어 배려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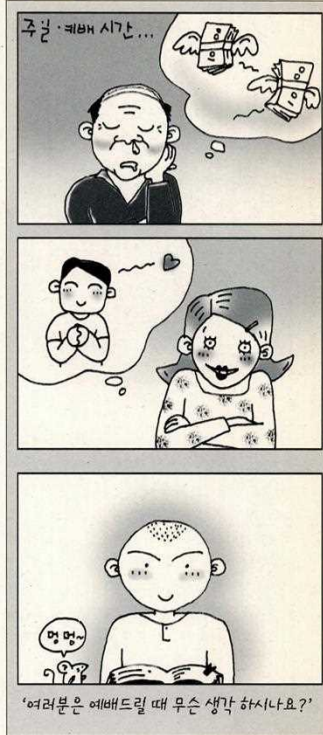
하루하루를 보내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첫날엔 일하기 좋은 날씨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 둘째 날에는 우리가 시료를 바라보며 정말 시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셋째 날에는 우리가 나가는 밤의 주인이 단 한사람이라도 언제나 주님을 영접하기 원한다는 기도, 셋째 날의 기도는 그날 하루만에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었지만, 첫날과 둘째 날의 기도를 이루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도 저버리지 않으셨다고 확신했다.

마지막날 한 선배가 했던 말이 기억난다. 전도라는 것은 물통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 채워가서 결국에는 그 물통이 차게 되듯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단번에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언젠가 복음을 알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말. 우리가 채웠던 물이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마지막에 아니었겠지. 하지만 우리가 그 몇 번째의 물을 붓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팀원들이 총동원되어 일을 마친 후 그 넓은 수박밭에서 푸른을 꺾고 기도하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눈물을 흘리시던 주인 할머님의 모습을 나는 잊을 수 없다.

4박5일이라는 짧고도 길었던 시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많이 감사한다. 아마도 이번 여름 내내 내가 가장 뜻깊고 기억에 남을 하루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만평

글/이종주 · 그림/장민



재수생

이상급 (대학부 2년)

대 학부에는 많은 수의 '재수생'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재수생들과 다르다. 그것도 아주 많이 다르다. 대학부에 있는 재수생들은 때로는 오페스트라에서 눈에 띄기도 하고, 군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에서 볼 수 있기도 하다. 수련회 때 땀을 뚝 뚝 두는 우리들의 땀과 달리 재수생들은 찾아볼 수도 있다. 단지 행사에만 열심히 것은 아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 자마자 수련회 저녁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혼자서 기도원에 힘들게 찾아오기도 한다. 그리고는 아침 일찍 학교에 가기 위해 졸린 눈을 비비며 새벽에 차를 타기도 한다. 대학부 GBS에 참여하는 것에도 열심히고,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여한다. 이들에게는 수험 생활이 그다지 무로가 되지 않는다. 공부하는 것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미래를 정하고도 힘들지만 내색하지 않은 채 한 걸음씩의 모습이다. 세상이든 이리하면 모습은 발견하기 쉽다. 그런데도 이들을 세상과 다르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목표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대학부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다른 이들을 무척



하게 만들어 버릴 만큼의 여유를 지닌 채.

수능시험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이 시기에, 나의 '재수생 후배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시험의 특성상 보장된 미래가 없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열심히 마음을 돌릴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세상 것에 목표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교회에서의 메시지와, 그레드 결국에는 노력하지 않으면 도파되는 이 시대의 현실 사이에서 답답해하지 않으며 자신의 일을 잘 찾아 해 나가는 후배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진다. 기도했더니 한하던 대로 학원을 옮길 수 있게 되었다면서 기뻐하던 모습,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한 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줌으로 내버린 모습, 자신의 어려움을 속에서도 아버지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속에서 교회가 원한다. 그리고 시대가 원하는 '천국 일꾼'이 자라나고 있음을 확신한다.

NMC 하기 편도

지상형 (대학부 2년)

준비를 시작할 때는 정말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허락하셨고, 우리 안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고, 하루에 반에 있는 병원들을 23 곳씩 도는 강행군이어서 그런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들은 연약한 육체로 인해 많이 불편해지고, 지쳐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서 수박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는 그곳에 누워 계신 복음을 모르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날에 부산 보훈병원 내에 있는 정신 병동에서 들어 보였는데... 이곳에 오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저의 연약함을 정말로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내 말과, 경험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지요. 이곳에서 제가 만났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입원한지 100일쯤 되었고, 정신 질환이 있어서 입원하셨던 겁니다. 제 말을 잘 알아들으시지 않는데, 너무도 기쁘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내심 걱정이 됐지만, 영접기도를 해 드릴 테니까 제 말을

따라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격정이 되었던 이유는 이제까지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 영접기도만 해드리려고 하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손이 오셔서 나가지 않나, 칼 들어주시다가도 갑자기 싫다고 나가라고 하지 않나. 정말로 사단은 한 영원이 구원받은 것을 싫어하나 봅니다. 아무튼 그 할아버지한테 한마디씩 따라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한 소리라도 자주 난만 치시더니, 제 말을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너무도 잘 따라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정신 질환으로 이곳에 입원해 계시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신, 세상으로 따져 보면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시던 그 할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하게 보였을까요. 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으요' 라고는 입버릇처럼 하던 분이 이 할아버지한테 전할 때만은 내 마음에 정말로 그분과 만나고 함께 너무도 큰 감동이 되었고, 그 할아버지 앞에서 오랫동안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내가 쓰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였고, 그렇기에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NMC 하기전에 사귀어 있었습니다.

인도발은의 편지

참 고마우신 강 집사님



강 집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푸른 바다의 찬란한 파도처럼 요동하지 않은 집사님의 믿음생활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세상 힘들었던 교회생활이 생각나네요. 결혼 10년동안 교회를 3번이나 옮기면서 겪어야 했던 너무나 힘들었던 순간순간의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자유함, 말씀을 심령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우를을 넘어뜨리라는 그 무언가와 항상 조한 마음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진리는 있었지만 홀로 싸워가기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기에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었고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 누구에게도 형제 자매의 사랑을 느끼기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기에에는 저희의 힘들었던 생활을 다 쏟아내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우리 부부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교회문제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교회로 갈까 너무나 결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강집사님의 인도로 충현교회로 오게 하신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현교회로 인도하실 때의 집사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집사님의 말씀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자유함, 평안함,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지혜와 내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세세 요한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것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김진관·이혜경 성도)

+ 양오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긴급히 요청됩니다

6교구 유향선성도님은 유방암 및 뇌종양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되어 삼성의료원에 입원중이십니다.

8교구 박희순집사님은 임파선암으로 병원치료가 불가능하여 현재 대전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고 계십니다.

9교구 유금란성도님은 자궁암으로 치료 불능으로 진단되어 자택에서 홀로 요양중이십니다.

11교구 서정희집사님은 직장암 수술 후 방사선 및 항암치료에 몹시 힘들어하십니다.

울로 병상에 갇힌 유금란성도를 찾아가 위로해주시고, 중병이 아닐지라도 연약한 상태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준비교실

- 일 시 : 2000년 8월20일(주일)부터 매주일 오전11시~12시30분
- 강의기간 : 8주
- 강의장소 : 신봉가정부(교육관 201호)
- 참가대상 : 결혼을 준비하는 커피
- 그룹형태 : 그룹 전체가 모여 주제강의를 듣습니다. 필요시 커피 혹은 개인상담이 주어집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다른 커피들과의 교류도 문제가 없습니다.
- 등록안내 : 562-8200(교한429)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스도의 작은 빛이 되기를

한 에 현 (집사, 12교구)

저는 우상(남포요령교회)을 섬기는 흙이머니 밑에서 살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나는 왕비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사랑만 주고, 내발대로 다 들어주고, 삶은 소리 하지 않고, 달콤한 말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성격은 불같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발상은 같이 들어와서 하고 부드럽고 듣기 좋게 말을 해도 풍요로운 직선적으로 음성을 높이며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

기가 일쑤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데 해보니 난 못살겠어. 이혼을 해야하는 생각이 늘 나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을 때 나에게에는 2살짜리 딸이 있고 둘둘에는 임신중이었죠. 우리 부부는 말다툼을 하였어요. 그때 남편이 딸에게 버두고 나더러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 상황에서 나도 자존심이 있지 않단다고 할 수 없었죠. "안았어" 하며 뒤도 안보고 집밖으로 100미터 정도 갔을게, 버스 정류장에서 내 딸과 같은 빨간 원피스를 입은 아이를 보는 순간 딸 생각이 불현듯 나고 그에 생각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다. 그때 내머리 속에 한알에 밀알이 떨어지지 썩지 않으면 한알이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내 가슴 속에 와 닿았습다. 그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성격과 표현 차이인데 내가 죽자 그러니 내말도 구박된 이리 안되고... 하며 마음을 바꾸어 먹고 중부시장에 가서 달 한바리 사가지고 집에 와 남편이 좋아하는 육계장 끓일 준비해 놓고 큰집에 갔더니 남편 나를 보는 눈빛이 구세주를 만난 것 같더군요. 앞으로는 남편한테 맞추며 살아 나는데 없이 하면서 말도 잘하고 밝은 마음으로 그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면서 내가 구원이냐 의 전권이 되더군요. 예수 믿지 않던 나에게 성경책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어 남편을 원망하던 내가 이제는 그날이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감사한지요. 나의 자존심 굴복 줄 모르던 나에게 결혼을 가르치시고 성심을 가르치신 성경말씀으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작은 빛이 되기를 오늘도 손모으고 기도합니다.

나혼자 천국같은 없었어

영적 전투

김 후 전 (권사, 13교구)

예수 믿기 전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 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백성이 되고 보니 세상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나에게서 피감을 찾았다고 하시는 데... 또 죽은 제가 아무 공로없이 하나님의 신은 은혜로 구원을 얻고 보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곳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중에 육에 갇힌 자를 돌보라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교정전도회를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한달에 한번씩 전수교도소와 청송교도소로 복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댔고 기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경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제일 강력법들만 수용되어 있는 청송교도소로 제가 배치받고 열명의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와 있는 소죄형식도 들어가는 순간 저는



사시나루 몇돛이 벌벌 떨고 말았습다. 턱과 턱이 마주칩니다. 정말 강력한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열광은 약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사람 한사람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자 저들도 울고 기도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교도관님들이 왜 그렇게 우시느냐고 반문하기에 교도관님도 매수일 영접하시면 왜 우는지 알게 될텐데 예수님 믿으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수용자들이 모두 변화되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 질것을 믿고 매일 둘째 주 월요일이면 청송감호소로 부를받은 8명의 사역원이 복음 안에서 한마를 한듯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 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총현의 성도님들, 사역에 동참하여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도의 손길로 가득찬 탁아부

김 남 석 (집사, 탁아부 교사)

충원교회 탁아부는 10여년전에 교회의 5대 목표인 신령한 예배 드리기와 전국일꾼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주일 2부, 3부, 4부 예배시간 동안 유아들을 받아 기도과 사랑으로 돌보며 행복한 교회생활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나는 운동시간에 이은 송향차 전도사님의 너무나 재미있는 그림성경이야기를 듣다 보면 유아들은 어느새 말씀으로 마음이 쏙쏙 자라나서 전국일꾼으로서의 영적 자질을 키워나갑니다. 2부 특별활동시간은 작은 이벤트 행사로 탁아부 친구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임, 만들기, 발표회 등으로 신나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또 맛있는 간식을 먹다 보면 어느새 부모님 만날 시간이 되곤 합니다.

탁아부는 아기들의 부모님께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단순한 탁아의 기능에서가 아니라 영적, 정신적, 육적으로 잘 조화된 가정교회의 포근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이곳에서 전국일꾼의 자질이 배양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아기들이 이곳을 좋아하며 즐거움 마음으로 오고 싶어하는 전국교회를 모험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탁아부에서는 충원의 성도들께서 마음놓고 사랑하는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부서가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탁아부는 본당 지하1층 유아원실에 있습니다.



“통성기도를 시켜보는 건 어때?”

이 회 주 (유년부 교사)

공과책에 나와 있는 ‘기도해보’란을 실눈으로 보며 기도하는 아이들에게 통성기도를 어려움 없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인간적인 시작이었음을 고백한다. 이번 유년부 성경학교에서는 촛불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순서 중에 반별로 모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난 잠시 망설였다. 아이들에게는 처음 해보는 통성기도를 과연 내가 잘 이끌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인도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반의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때 문득 내가 ‘내 의지로 아이들을 이끌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을 잡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라며 신해했지만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도 있었고,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도 있었다. 물론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는 아이도 있었지만 그 아이도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으리라고 믿는다. 나도 함께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려다, 한 아이가 내 눈물을 닦아주며 나를 안아주기까지 하였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부족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도를 보내주시고 또 어떤 영혼들을 통해 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에 감사하며 언제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창세기 성경공부를 하고

신 영 희 (집사, 소년부 교사)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들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

창세기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키워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되어 그저 감사할 뿐이다.

창세기에 관한 많은 서적들을 보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깊이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매일 훈련시키시며 1년을 준비시켜주었다. 작년 1월에 한층 일장도사님께서 부모님을 따라 아침 일찍 나와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소년부 학생들을 아침에(9-10시) 성경 공부를 가르쳐보라고 하셨다. 작년에도 15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였고 올해엔 25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족장들의 인본을 가르쳐보았다.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 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가르쳐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그 계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그들에게 많은 믿음의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비전에 처하든지 공부를 처하든지 자족하며 일체에 비결을 배우며 신한 일에 애쓰며 믿는 자와 학생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장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진 화 자 (집사, 장년부 교사)



제22회 장년부 수련회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수련 합동찬양회에서 개최되었다.

합동찬양회에 도착해 개회예배를 먼저 드리고 박형용 목사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와 경순원 목사의 ‘교회’의 시작’으로 은혜받고 찬양과 말씀 공동체 훈련 기도로 무장하며 우리 지체들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바게 활약 오우며 승리하는 우리 장년부 가정, 직장, 교회 생활이 되기를 원하며 하기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장년부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신 부장 장로님을 비롯해 모든 분들을 감사드립니다.

오산나 수련회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호산나 대원

“한 여인이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속함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이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셨기에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아니 더한 것이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곧 기적과 형식이 아닌 깊은 심층의 표현이었었던 것입니다”

호산나 성가대 수련회 기간 중, 경건의 시간을 통해 있었던 차병준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렸는가’를 돌아보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생명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최선의 것으로 드러지지 못함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항상 연합하여 찬송과 기도를 때마다 우리의 제 목들이 절실한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호산나 찬양대원과 대장으로 수고하고 다 주님의 부르심에 목회사역을 하시기 되어 지금은 호산나 찬양대를 떠났지만 항상 호산나 찬양대를 관심 있게 보시며 기도하신다는 구명선 전도사의 특강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따라 구별된자로 신령한 찬양을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가대 수석으로 100% 축복을 늘려주며 연습에 충실하도록 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신령한 찬양을 드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각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체가 익숙한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드리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의 별호와 연결해서 ‘119찬양대’로 언제 어디서나 작위에 붙을 그그 성령의 불을 일으키고 신령한 찬양이 되도록 하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수련회를 마치고 내 생명을 최없이 곡조신 예수님의 피로 값주신 사신 생명이므로는 정성 다하여 감사하며 헌신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충성스런 모습으로 있으리나니 한 자인, 꼭 필요한 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에 임하려고 합니다. 찬양은 곡조있는 기도요, 기도는 곡조없는 찬양이므로 찬양할 때 성도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불신자에게는 전도함이 되며, 사탄이 멀리 물러가는 찬양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된 모든과 특권을 가지고 되돌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 하나님이기며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매어주신 호산나 찬양대원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매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예매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신복, 복귀자 동행자 제외)	본 당
	IV 오후 1:00 (종교인 동행자 제외)	본 당
	V 오후 3:00 (일반인 동행자 제외)	본 당
English Service	9:00 ~ 11:00	강원문화재단(Culture Center)
천 주 교 예 매	오후 5:00	본 당
소 주 교 예 매	1.오전 11:00 2.오후 7:30	본 당
오 교 집 회	오후 7:30	본 당
세례기 도회	오후 5:00	본 당